

코스닥 30주년, 소부장으로 확산된 온기

KOSPI 8,303pt (-2.0%), KOSDAQ 929pt (+1.4%)

① 해외 상황

AI가 주도한 미국 증시, 2분기 S&P500 +15% / 나스닥 +21%로 마감

- 전일 미국 주식시장 상승(S&P500 +0.8%, 나스닥 +1.5%,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3.9%). 반도체 관련주(샌디스크 +10.8%, AMD +7.7%, 인텔 +6.0%) 및 주요 빅테크(엔비디아 +2.6%, 애플 +2.7%) 상승한 반면 헬스케어, 유통 등은 약세

② 수급

리밸런싱 종료 이후 변동성 축소, 업종/사이즈 로테이션

- KRX KOSPI 현물 기준 개인 +1.7조, 외국인 -1.7조, 기관 -0.1조원 순매수(연기금 -0.2조원). 외국인 수급 이탈은 반도체 대형주에 집중되었으나, 그 폭은 전일 대비 축소. 리밸런싱 종료 이후 변동성 축소 수순. 반면 KOSDAQ 현물 기준 외국인 +0.25조 순매수. 외국인 순매수는 반도체 소부장, 전력기기, 기관 관련주 등에 집중

③ 특징업종

대형주 수급 쏠림 완화, 전 업종 낙폭 과대 해소로 연결

- 코스피 대형주 -2.4%, 중형주 +2.9%, 소형주 +2.4%. 상승종목수 711개 vs 하락종목수 194개. 코스닥 상승 종목 1,210개 vs 하락종목수 -492개. 반도체 대형주 쏠림 현상 완화되면서 업종/사이즈 순환매 발생. 반도체 소부장, 건설, 방산 등으로 온기 확산된 반면 반도체 대형주 약세. 이차전지 또한 전일 개별주 악재 반영되며 하락

④ 이벤트

매크로 → 삼성전자 실적으로 이어지는 주요 이벤트 대기

- 1) 미국 고용보고서(3일 오전 5시 30분) 2) 삼성전자 2분기 잠정실적(7일 오전, 예상) 등 주요 이벤트 소화 대기. 3) 외환시장 24시간 거래 개시 예정

⑤ 상황

반도체 수출 호조, KOSDAQ 30번째 생일을 맞아 소부장 강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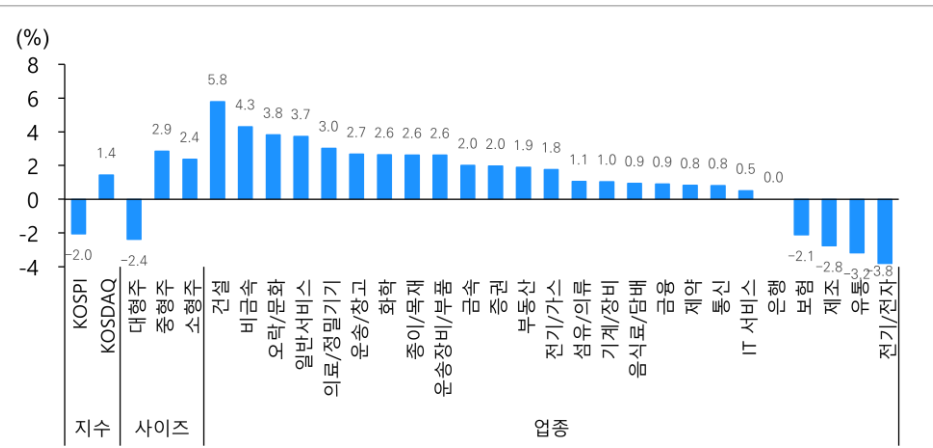
- 금일 KOSPI, KOSDAQ 각각 -2.0%, +1.4% 등락. 외국인 투자자 중심 반도체 대형주 차익실현 매물 출회 이어졌으나, 전일 말 대비 그 폭은 상당 수준 축소. 전일자로 분기 및 반기 말 외국인 리밸런싱 마감되며 증시 변동성 또한 완화된 것으로 판단.
- 반도체 소부장, 전력기기, 조방원 등으로의 순환매 발생했으며 KOSDAQ 출범 30주년을 맞아 중소형주 중심으로 온기 확산. 3대 메가프로젝트의 직접적 수혜가 기대되는 업종 중심으로 호재를 소화하는 모습. 금일 발표된 6월 수출액이 사상 최초로 1천억 달러를 돌파한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전년 대비 +200% 상승하며 AI/반도체 성장 내러티브가 훼손되지 않았음을 또다시 증명

당일 투자자별 순매수대금

(단위: 억원)	KOSPI	KOSDAQ
기관	-702	-1,256
외국인	-17,030	2,471
개인	17,393	-1,081
거래대금	396,591	117,159

자료: 인포맥스,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일간 수익률



자료: 인포맥스,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Appendix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함. (작성자: 이재원)
- 당사는 동 자료를 전문투자자 및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의 투자를 권유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금융투자분석사가 신뢰할 만 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와 정보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것이지만, 당사와 금융투자분석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투자자의 투자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자료는 당사 투자자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송 인용 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